

“민주화·노벨상 도시 광주, 국회도서관 분원 최적지”

광주국회의원 8명 ‘호남분관 토론회’
정보 불균형·지식 격차 등 해소해야
“민주인권·AI 특화…다양한 접근”
‘제2의 한강’ 등 지역인재 배출 역할

최근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지역 내 ‘책 읽는 도시’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국회도서관 호남분관을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역거점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도시 광주의 ‘미래형 도서관’ 추진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8명의 국회의
원(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
·전진숙·박균택·민형배)은 30일 국회 의
원회관에서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
주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에는 신수정 광주시의장, 박노수 경희대·
노우진 건국대 교수, 이경진 한국문화관
광연구위원, 박경현 국토연구원 센터장,
김승봉 국회도서관광주관유치추진위원
및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분관을 호남 권역에 신설해 5·18로 표상되는 광주의 역사성을 공고히 하고 국가지식 자산을 분산 보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남분관 필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광주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원위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광주도서관 신설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물밑 행보를 지속해왔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축사



정준호 의원실 제공

를 통해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지식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서울·부산에 유치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호남분관 또한 ‘지식정보거점 역할’로서 꼭 유치돼야 한다”며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국민적 열풍이 이는 시기, 광주가 (호남분관 유치 등으로) ‘인문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토론자들은 국회광주도서관의 효과성을 피력하며 '호남거점 도서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노수 교수는 “820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국회도서관은 자료 저장소를 넘어

정보 허브와 지식공유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남분관은 지역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며 "광주라는 도시 특성상 민·주·인권 특화 도서관 등 다양한 접근도가 가능하다. 지난 2022년 설립된 국회 부산도서관의 경우 현재 해양·항만·물류 등을 특화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별 소장 자료가 보존된다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우진 교수는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립도서관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식격차해소, 연구조사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충청권인 세종관도

오는 2030년 설립될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호남분관 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화 연구·전시·보존을 위한 센터를 비롯해 공연 등이 어우러진 ‘빛고를복합문화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중심도시광주를 강조하며 ‘미래형 도서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봉 추진위원은 “광주는 민주주의 상징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중심 스마트 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호남분관은 이들이 어우러진 ‘스마트 지식 허브’일 것”이라며 “국회 광주도서관은 AI기반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자동 번역 등 첨단 지식 플랫폼이 구축돼야한다. 또 24시간 디지털 서비스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자·산업 종사자들의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역 정서·문화적 서비스를 위해 호남 대표 도서관 유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문 국회도서관시민추진위 대표는 “앞서 현대미술관 광주분관 유치가 어려웠다.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도서관이 ‘다기능 다목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남녀노소 미래세대까지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 설립으로 ‘제2의 한강’ 등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배출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준호 의원은 “다음 국회도서관 본원은 민주주의 성지이자 노벨문학상의 도시 광주에 유치할 차려”라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 광주도서관 설립 과제·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었다. 광주 8명 의원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국회 광주도서관 건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달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과 설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회 광주도서관 유치가 확정되면 접근성·복합성 등을 고려해 설립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유력하게 접목되고 있는 곳은 남구·북구·광산구 등이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시, KIA 홈경기 성공개최 지원 효과 ‘톡톡’

야외 응원전·배달앱 할인 성과 원정팬 수송…도시 이미지 제고

광주시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마련한 '홀경기 성공개최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이 스포츠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진행됐던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교통(수송) 및 주차 대책, 공공배달 앱 할인이벤트, 원정경기 홈 응원전 등 다양한 종합지원을 시행했다.

특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 야외응원전에는 3만5000여명의 시민이 몰리며 인근 푸드 트럭과 지역소상공인 등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정관람객을 위해 38대의 전용버스를 운행, 스포츠도시 광주의 이미
지 제고에 기여했다.

광주시는 KIA 구단과 협의를 통해 대구에서 치러진 한국시리즈 3, 4차전 홈 응원전을 2만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도 한국시리즈 기간

야외 응원전이 열렸다. 이 기간 1만1870명이 응원에 참여했으며, 지역소상공인과 푸드트럭은 2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광주시가 한국시리즈 기간에 진행한 ‘뽕겨요’, ‘위메프오’ 등 광주공공배달업 특별법인 프로모션도 인기를 모았다. 광주시는 시비 1억원을 투입해 경기 당 1500명을 대상으로 건당 3000원 특별법인 이벤트를 진행, 평일 대비 주문 135%, 매출 138% 증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 홈경기 당일

(1차전, 2차전, 5차전) 경기장을 찾는 외지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기 종료 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유스퀘어와 송정역을 직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버스를 3일간 38대 운영했다. 또 광주관광DRT(수요응답형 교통)를 경기종료 후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유스퀘어를 경유해 농성역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집중 운영해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도왔다.

한국시리즈 기간 전용버스 1710명, 광주관광DRT 331명 등 모두 2041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병하 기자

노병하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